

두만강에 흐르는 사랑이야기

회화극본 《두만강》 펴낸 김산호 화백

사랑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별 장애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사랑보다는 무수한 장애를 극복한 사랑이야기가 더 그렇고, 그것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애절함이 더 관심을 끈다. 최근 만화가 김산호씨(56)가 펴낸 《두만강—그 첫번째 이야기 하얀 손수건》(국민서관)도 사랑이야기다. 그것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 이야기에는 단순한 흥미나 관심을 넘어서는 아픔과 처절함이 있어 마음벽을 아리게 만든다.

처절한 사랑이야기

연변 총각 장혁과 북한 처녀 은실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 연변으로 외화벌이 공연을 나온 은실과 장혁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랑을 느낀 장혁은 폐병에 걸려 신음하는 은실을 찾아 북한으로 간다. 은실을 감시하던 북한 안전원을 쓰러뜨린 두 사람은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다. 탈출은 실패하고 결국 은실은 안전원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다. 은실의 시신을 끌어안은 장혁의 통한의 울부짖음.

화구를 췌겨 두만강가로 나갔다가 이 일을 목격하고 가슴아파하는 작가에게 연변쪽 안내원은 “선생님 저기 하얀 별판 아래엔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수많은 비극이 얽혀 흐르는 강이지요”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작가이면서 화가이기도 하니 지금의 이야기를 한 번 그려서 꾸며 보세요”라는 권유와 함께.

《두만강— 그 첫번째 이야기 하얀 손수건》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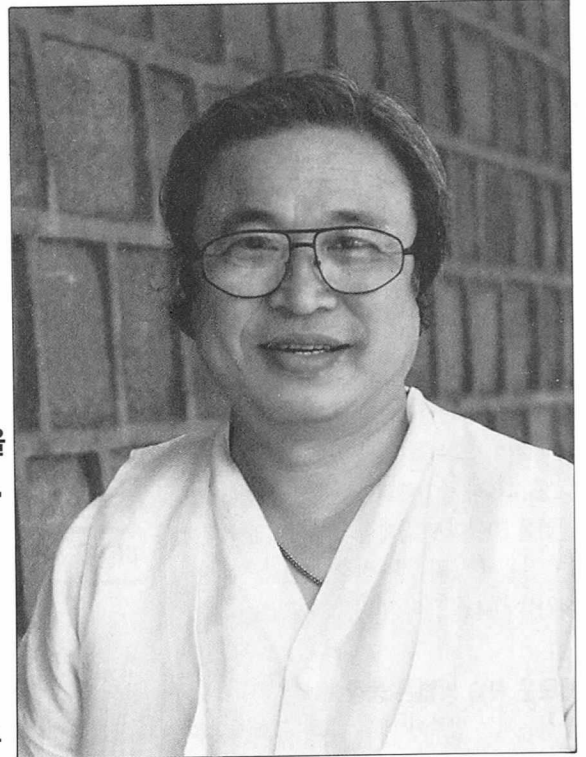
“이 작품은 내 첫딸과 같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마냥 아름답고 예쁘게만 만들 수가 없더군요.”

처음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그리면서 첫딸을 내놓는 기분이었다고 밝히는 김화백은 이 책을 만들면서 약간의 갈등도 겪었다. 기왕이면 현대 독자들의 감각에 맞게 더 세련되고 멋있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과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는 작가정신이 맞부딪쳤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보여주자고 결정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사랑이야기를 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화백은 ‘회화극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했다. 김화백이 창안한 독창적 작품으로 순수회화와 극본이 결합된 형태다. 더 쉽게 말하면 과장과 익살스러움을 주로 하는 만화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보면 된다.

서라벌예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이 책의 그림들은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후 화선지를 배접한 용지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그린 것이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창적 기법을 사용, 유화의 무게와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방안 가구들의 배치며 달력이 걸린

《라이파이》의 작가로 기억되는 김산호 화백의 《두만강》 연작 시리즈는 무심한 듯 말없이 흐르는 두만강물이 끌어안은 무수한 비극적 사연들을 담게 된다. 그 첫 작품을 마냥 아름답고 예쁘게만 만들 수 없었던 것은 그를 통해 민족의 비극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산호 화백.

위치, 사람들의 옷차림새, 얼굴윤곽 어느 것 하나도 사실과 다름이 없는 극도의 사실성은 독자들을 눈덮인 두만강, 연변 조선족 가정의 안방으로 자연스레 데려다준다.

돌아온 ‘라이파이’

“외국생활 30년에 머리가 하얗게 섰습니다.”

김화백은 외국에 나가 10년 있으니 조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20년이 지나니 그리움이 넘쳐 애절해지기까지 했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가 됐다고 고백한다.

몇해전부터 외국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민족이 현재 겪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두만강》에 앞서 그는 잃어버리거나 왜곡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웅대한 스케일로 복원한 《대주신계국사》(동아출판사)를 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화백은 석가의 생애와 사상을 회화극본의 형식에 담은 《대불전》(한국불교진흥회)도 비슷한 시기에 완간했다.

맹렬한 창작열로 새롭게 국내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화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라이파이》의 작가로 기억된다. 늘 슬프

고 지는 역사를 다룬 만화가 싫었던 그는 미래에서 온 사나이 ‘라이파이’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이기는 기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독창적인 화법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한국만화계의 걸작으로 평가됐던 이 작품 외에도 《차돌장군》《청동마왕》《흑검무》《광풍도시》 같은 선이 굵은 만화를 그려 60년대 만화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돌아온 ‘라이파이’가 옛날 누렸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오히려 그의 작가정신과 작품세계는 이미 ‘인기’를 넘어서는 영역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본소 만화가 중심을 이루고 일본 만화가 판치는 우리 만화계에, 그의 굵직하고 선명한 주제의식과 독창적 기법은 돋보이는 성과인 동시에 커다란 자극제임에 틀림없다. 무심한 듯 말없이 흐르는 두만강물이 끌어안고 있는 무수한 사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게 될 《두만강》 연작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 박남정 기자

